

오페라 초연

달이물로 걸어오듯

신 데 렐 라 컴 플 렉 스
핏 빛 버 전

작곡 최우정 대본 고연욱

예술총감독 이건용 연출 사이토 리에코 지휘 윤호근

경자 정혜옥 장유리 수남 염경묵 김재섭 검사 엄성화 마담 김지선

미나 윤성희 국선변호사 외 최보한 형사 외 이 혁 판사 외 이두영

2014.11.20(목)~23(일)

평일 19:30 | 토,일 17:00 세종 M씨어터

신선한 소재와
탄탄한 구성을 갖춘
한국 초연 오페라를 위해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팀과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모였다.



생각하는 오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대사나 노래 가사에 담긴 내용 및 그 의미를 넘어,
무엇보다 음악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페라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 작곡가 최우정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IMF당상블 예술감독)

작품은 아내와 함께 아내의 외봇 어머니와 외봇 여동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던 한 남자의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아내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그는 판사에게 자신의 행량을 낮춰달라는
판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망설였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언제나 그 경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 작가 고연옥 (제2회 대산문학상 희곡부문 대상 수상)



진심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 안에 자리잡나요?
시는요? 음악은요? 달이 물로 걸어오듯 오는 것 아닐까요?
- 예술총감독 이건용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및 총장 역임)

생각은 마음에 어떻게 투영될까요?
물에 비친 달처럼 청명해 보일까요?
생각과 마음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 그리고 싶습니다.
- 연출가 사이토 리에코(西條理恵子) (일본 극단 세넨자에서 연출가로 활동)



달이 물로 걸어오는 소리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 지휘자 윤희근 (프랑크푸르트 오페라극장 지휘자 역임,
동양인 최초 베를린 슈타츠 오페라에서 부지휘자로 활동)

PRODUCTION STAFF



이건용

예술총감독



사이토 리에코

연출



을호근

지휘

CAST



정혜욱

경자 소프라노



장유리



정경혁

수남 바리톤



김재섭



정성하

검사
테너



김지선

마담
메조 소프라노



윤성희

미나
소프라노



최보한

국선변호사 외
테너



이 혁

형사 외
바리톤



이두영

판사 외
베이스바리톤

연습지휘 정나라 피아노 정이와

세종 카메라타를 통해
2년에 걸쳐 제작한 초연 오페라

달이물로 걸어오듯

서울시오페라단은 2012년 국내 초연(창작) 오페라 콘텐츠 연구와 개발 사업을 위해 “세종 카메라타”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워크샵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3년에는 세종 카메라타 멤버들이 작곡한 네 편의 오페라를 리딩 공연하였으며, 오는 11월 그 중 첫 번째 작품으로 <달이 물로 걸어오듯>을 선정하여 초연합니다.

이 작품은 그 동안 국내 초연 오페라에서 주로 다루었던 민화나 영웅전과는 달리, 고연옥 작가가 시대나 배경을 초월하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소재로 섬세하게 대본을 완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최우정 작곡가 특유의 정교하고도 매우 세련된 음악이 극과 함께 어우러져 최고의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출연자들의 뛰어난 표현력으로 색다른 초연 오페라의 분위기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도 오페라 <달이 물로 걸어오듯>을 통해 한국 초연 오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진정한 소통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CHARACTER

- 수남** 50대 중반의 화물차 운전자
경자 30대 중반의 술집 종업원
검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
마담 경자가 일하는 술집의 마담
미나 술집 종업원. 처음부터 경자의 사랑을 의심한다

SYNOPSIS

나이 오십이 넘도록 혼자 살아온 화물차 운전자 수남은 술집 여종업원 경자를 만나 새 삶을 시작한다. 어느 날 새벽,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수남에게 경자는 장롱 속에 숨겨둔 두 구의 시체를 보여준다. 어린 시절 계모와 여동생 때문에 자신이 받아야 할 사랑의 몫을 빼앗겼다고 믿었던 경자는 두 사람에 대한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수남은 경자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대신 살인죄를 뒤집어쓰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점점 자신을 폭력남편이자 잔인한 살인자로 몰아가는 경자의 모습에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 결국 재판일이 다가오고 수남은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되는데……

	20일 (목) 19:30	21일 (금) 19:30	22일 (토) 17:00	23일 (일) 17:00
경자	장유리	정혜옥	장유리	정혜옥
수남	엄경목	김재섭	엄경목	김재섭
검사	엄성화			
마담	김지선			
미나	윤성희			
국선변호사 외	최보한			
형사 외	이 혁			
판사 외	이두영			

※상기 출연진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최 | (재) 세종문화회관

티켓예매 | 세종문화회관 인포샵 02-339-1114 www.sejongpac.or.kr

☎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입 장 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 B석 1만원

할인내역 | 세종유료회원 (프리미엄 30%, 골드 20%), 현대카드 · BC카드 20%,
단체할인 20인 이상 20% (전화예매만 가능), 서울시오페라단 공연 관람자 30%
(2014 공연중),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경로우대 (만 65세 이상) 50%

공연문의 | 서울시오페라단 02-399-1783~5

※ 본 공연은 미취학 아동의 관람이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